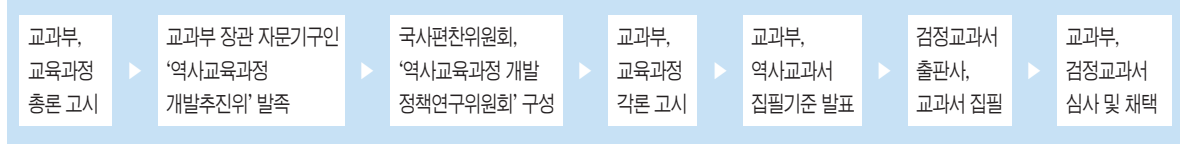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비교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친일파 청산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	삭제
독재 •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한 긍정적 인 연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 유신체제가 무너진 뒤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부를 세웠음을 기술한다. 이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1인 장기 집권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 •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	•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 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

■ 역사교과서 집필 절차



■ 역사 역주행 하는 MB정부

‘민주화’ 지우고 ‘보수’ 입히나

독재 정권의 이름·독재의 구체성 모두 없어

뉴라이트 학자들의 ‘보수 교과서’ 등장 우려

8일 발표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한국 현대 민주화의 역사를 희석시켜, 퇴행하는 역사 교육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발표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사라졌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후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기준도 지워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2008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교과서포럼이 펴낸 ‘대한교과서 한국·현대사’ 같은 ‘보수 교과서’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 대가 약화=이번에 발표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은 기존 2007 집필기준에 비교해 크게 축약된 형태다. 2007 집필기준은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이라는 대단원 아래 8개 소단원을 배치하고 각 소단원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구체적인 민주화의 계기는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을 거명했다. 그러나 이번 집필기준에서는 소단원이 4개로 축소됐고, 구체적인 내용도 삭제됐다.

2007 집필기준은 ‘박정희 정권이 두 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1인 장기

집권체제를 성립’했다며 독재 정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유신체제가 무너진 뒤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라며 민주주의의 염원을 신군부가 말살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집필기준은 독재 정권의 이름과 독재의 구체성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또 시안에서는 사라졌던 ‘독재’ 표현이 확정안에 포함됐으나, 이 역시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제한적 표현으로 독재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집필기준 ‘친일파 청산’ 항목에 제시했던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는 부분은 항목 자체가 지워졌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앞으로 나오는 역사교과서들은 검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민주사적 관점에 서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기 술 강행=교과부는 ‘민주주의’에서 무단 변경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했다. 검정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기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헌법 정신이나 관례를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며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로 써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안에 포함됐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2개 가운데 1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된 셈이다.

한국현대사학회 등 뉴라이트측은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으로 한정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다.

역사교육과정 개발 공동연구위원장인 오수창 서울대 교수(국사학과)는 “한국사 연구자들과 대다수의 학회가 요구했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배제해 채 한국현대사학회 측 주장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민주주의로 표현하면 되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병기하는 바람에 집필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은 9일 성명을 통해 “중학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대 독재 정권과 4·19, 5·18,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전면 삭제토록 한 것은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준영 “패배주의 빠진 민주당 정신 차려라”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당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9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던 것보다 강도가 훨씬 컸다. “열린우리당식 잠망 정당이 될 수 있다”, “지도부가 정신차려야 한다”며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박 지사는 9일 오후 전남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권 대통합

“ 손대표 통합노선 잡탕 정당될 수 있다 소수 극좌에 끌려 다녀 당 해체해선 안돼 FTA 투쟁방식 옳지 않다... 쓴소리 쏟아내 ”

이러했다. 그는 “최근의 움직임은 패배주의에 빠져 통합과 연대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의 명분을 놓칠 수 없는 대권주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라 해체모여식의 ‘이합집산’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통합·연대만 갖고 얘기해선 안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요 가치를 가지고 치밀하게 토론하고 콘텐츠를 가지고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해 통합·연대가 화두가 돼있다”면서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지난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순천에 무공천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통합·연대나 FTA 대응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리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또 “민주당의 경장정책은 중도에서 정책이 따라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데 이를 국민이 지지한다”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소수 극좌에 끌려가고 있는 모양인데 극좌나 극우로 가면 국민이 불안해하고 수도권 증산증후군 환란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지사의 이날 발언이 전남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계 인사들의 인식을 반영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향후 지역 정치권 및 민주당 안팎에서 불려올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민들이 만든 ‘여성 친화마을’ 9일 광주여성재단 주최로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여성 문화난장’(12일까지)에서 시민들이 ‘내가 만드는 여성친화마을’ 관련 미니어처를 제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총선이 뭉치, 참...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공황장애(恐慌障礙)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때면, 잠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곧 멎어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유급차를 불러 응급실을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온다고 주장하거나 또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허(心脾兩虛), 심신불고(心腎不交), 위중불화(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경희한의원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빠르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제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회관 건너편

침 · 뜸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공황발작의 증상의 특징은 첫째는 예기치 않은 중에 아무런 특별한 자극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실과 그 발작이 보통 길어아 10분 정도로 짧다는 것과 몇가지 특수한 증상이 있다는 점이다.

- 1)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짐
- 2) 땀을 흘림
-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 4)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 5)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
- 6) 질식할 것 같은 느낌(목이 눌리거나 졸리는 감각)
-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 8)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 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10)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1) 오한 또는 열감을 느낌
12) 어지러움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불안정감, 머리 멍한 또는 졸도)
13) 감각이상(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한방에서는 공황장애를 마음속에 응어리진 갈등 즉 울화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처방으로는 보혈안신제인 보혈안신탕이나, 소간해울탕 같은 소간해울탕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환자 한사람을 실제로 치료할 때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우고 약물을 어떤 것을 택하여 어떻게 사용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환(罹患)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